



제목	역대기사가의 분열왕국 전쟁 기사에 나타난 전쟁이데올로기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신학연구소
발행일	2012. 3. 15.
저자	이윤경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9-43
ISBN 또는 ISSN	1227-4879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역대기를 종말론적 성격이 배제된 신정론적 성격자들의 작품으로 보는 기존 해석에 문제제기하면서, 역대기하에 기록된 분열왕국시대의 전쟁기사를 통해 역대기의 종말론적 전쟁의 특징을 조명하고 있다. 즉 이 논문에서 저자는 역대기사가가 전쟁기사를 통하여 이중적인 수사학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음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역대기사가가 한편으로는 제국을 ‘신적 심판의 도구’로 보는 예언자들의 신학적 원칙을 전수,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기사를 통하여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전쟁기사가 열방의 군사력을 절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다 왕들도 구원과 처벌의 대상이 동시에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역대기하의 특수 자료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14개의 전쟁기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쟁기사에 나타난 공통요소를 이끌어낸다. 저자는 이 전쟁기사들 중 성공한 전쟁의 경우 대다수가 ‘기적적 성공’이라는 점과 전쟁의 승패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요소가 주도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한편, 패배로 끝난 전쟁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예언자 신학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열방이라는 주제가 견지되고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독립정부와 군대가 없던 포로후기 유다공동체를 향해 역대기사가가 전쟁기사를 저술한 목적은 중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역대기사가는 페르시아의 군국주의를 되받아 쓰면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따라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